

# 빈곤의 현장에서 삶의 취약성을 정면으로 직시하다

윤종석\*

[서평] 조문영(2022), 『빈곤과정: 빈곤의 배치와  
취약한 삶의 인류학』, 글항아리, 425쪽

## 1. ‘빈곤’이라는 엄중한 질문: 오래된 관습, 복잡한 반성

최근 드라마 “더 글로리”가 인기다. 학교 폭력을 당한 한 학생의 처절한 복수극이 자아내는 극적 효과는 학교 폭력에 대한 경각심과 더불어 학교 폭력의 반복 속에서 무력한 피해자의 모습을 겹쳐 낸다. 하지만 한 발자욱만 더 나아간다면, ‘빈곤’이라는 문제가 그 근저에 깔려 있다. ‘달방’이란 말을 처음 들었다는 아이들에게 가난하다는 이유로 피해의 대상이 되고, 동일한 이유로 무력하여 저항하기도 힘들며, 다시 동일한 이유로 저항을 하더라도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고 감춰지고 악몽 같은 사건의 연속으로 내던져진다. 모든 원인을 빈곤의 탓으로 돌릴 수는 없겠지만, 빈곤과 결합된 사회적 낙인과 무기력함이란 문법은 미디어를 통해 재현되고 우리 일상에서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

최근 소준철은 『가난의 문법』이란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연시되어 왔던, 너무나 익숙한 ‘가난의 문법’을 되묻는다.<sup>1</sup> 무언가를 안/못했기에 원치 않는 가난의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는, 가난에 익숙해져 벗어나려는 노력

---

\* 서울시립대학교 중국어문화학과 조교수

1 소준철(2020), 『가난의 문법』, 푸른숲.

조차 안/못한다는 이야기가 근거도 확인도 없이 강력한 문법으로 자리 잡았다. 그는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노인 여성의 삶을 통해서, 사회과학에서는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처럼 여겨지는 가난과 궁핍의 생애사가 한 사회의 역사·정치·사회적 구조와 깊이 맞닿아 있다는 점이 담담히 그려진다.

다른 한편, 최근 중국에서는 전체 인구를 절대 빈곤에서 해방했다는 ‘역사적 승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중국 공산당과 정부는 2012년 이후 8년 동안 1억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빈곤에서 벗어났다고 선언했고, 시진핑은 “역사에 길이 남을 완전한 승리”라며 자축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중국 관방의 ‘빈곤 측정 기준’에 대해 여전히 의문을 제기한다. 연간 소득 4천 위안(한화 약 69만 원)의 절대빈곤 기준은 월 333위안(약 5만 6,000원), 하루 11위안(약 1,900원)에 불과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제기한 상대적 빈곤 개념, 즉 중위소득의 절반 이하를 빈곤으로 간주한다면, 연소득 7,000 위안(약 118만 원) 이하, 하루 소득 19위안(약 3,200원) 이하의 중국인은 모두 빈곤층에 속하며, 그 수는 최대 5억 명에 달할 것이라고도 한다. 그런 점에서 중국의 빈곤 인구들은 당국에 의해 ‘탈빈곤’되어졌지만 사회경제적으로는 여전히 ‘빈곤’하다.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하지 못한다’는 속담처럼 빈곤은 구제하기 힘들지만, 그 속사정은 더욱 엄중하다. 가난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나서야 할 문제로 받아들여졌고, 1987년 프랑스 파리의 트로카데 광장에 모인 10만 명의 군중이 “가난이 있는 곳에 인권 침해가 있다. 인권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다.”라는 문구가 새겨진 ‘절대빈곤 퇴치 운동 기념비’를 세운 지 30여 년이 지났지만, 빈곤의 문제는 여전히 엄중하다. 단순히 소득 수준이 나아진 것만으로 빈곤이 감소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빈곤은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교육, 보건, 생활환경 등 복합적인 측면에서 위협을 가중시키고, 최근에는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등 새로운 위협들이 새로운 빈곤층을 만들어 내고 있다.

분명, 지난 시간 세계는 ‘빈곤’이라는 위협에 대응하여 이를 ‘퇴치’하

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고 많은 성과도 거두었다. ‘장기 20세기’의 변영 속에서 ‘빈곤 퇴치’가 민족적·전 세계적 차원에서 하나의 비전이자 목표로 상정되어 왔고, 사회안전망 확충, 복지국가 레짐, 글로벌 기구 및 시민사회 운동의 실천 등의 노력 등이 이를 뒷받침했다. 때로는 빈곤 구제 및 퇴치의 활동이 개별 정권 및 사회운동, 전 지구적 차원에서 스스로에 대한 정당화의 수단으로도 기능해왔다.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물질적 풍요와 대조되면서, 빈자의 구제와 빈곤의 퇴치는 전 인류의 중대한 사명으로 언급되곤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은 그리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글로벌 복합위기’(global polycrisis) 상황에서 생활고를 겪는 사람들은 늘어가고 있고, 사정이 나아지지 않으면서 가난이 고착화되고 있다. 취약한 사람들이 더욱 취약해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 또한 쉽지 않다. 촘촘하지 못한 사회안전망과 여전히 부족한 지역사회의 관심 속에서, ‘송파구 세 모녀 사건’ 등 비극적인 사건이 수시로 반복되는 등 빈곤은 곧 불행으로 이어지곤 한다.

빈곤의 엄중함이 가중되는 지금, 과연 ‘빈곤’이란 가난한 자, 그들만의 문제일까? 조문영의 『빈곤 과정』은 이에 정면으로 도전한다. 저자는 인류 학자로서 지난 20여 년 간 직면해 온 빈곤을 학술적·실천적 차원에서 ‘문제적으로’ 드러내고, 복잡한 반성을 엮어 낸다. 저자는 중국과 한국의 빈곤 현장의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빈곤을 새롭게 발견하고 쟁점화 하는 작업을 시도하고, 하나로 수렴되지 않는 빈곤을 물질적·담론적·정동적 힘이 엮히는 과정으로 읽어낸다. 여기에서 ‘문제적’이라고 언급한 이유는, 우리가 당연시했던 정형화된 틀을 해체하고 알면서도 때로는 모른 척해 왔던 중층성과 그 엇갈림의 측면을 드러내는 동시에 이를 더욱 궁구(窮究)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익숙하게 반복되는 담론 구조를 답습하는 대신 참여자-연구자로서 다른 실험과 실천을 시도하는 작업으로 밀어붙이며, 저자 스스로에게, 나아가 이를 읽는 우리 독자들에게도 중요한 질문들을 던진다.

그런 점에서, 본 책은 빈곤의 현장을 연결하고 우리 스스로에게 되물으면서 질문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끈다. 저자의 빈곤연구는 우리 시대의 빈곤을 단순히 기록하고 분석하는 작업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빈곤을 어떤 방식으로 쟁점화하거나 외면했는지 돌아보면서 ‘빈곤을 어디로 가게 할 것인가’를 부단히 질문하는 과정이다.

## 2. 결과가 아닌 과정으로서의 빈곤: 복잡한 것을 복잡하게 읽어내기

무엇보다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빈곤을 결과가 아니라 과정으로서 보는 시선에 있다. 결과가 아니라 과정으로서 빈곤을 바라보는 시선은 복잡한 것을 단순화하지 않고, **복잡한 것을 복잡한 그대로 읽어낸다**. 저자는 ‘빈곤이란 무엇인가, 빈자란 누구인가’라는 결과에 대한 해석이 아니라, 빈곤을 ‘어디에나 있으면서, 어디에도 없는’ 과정으로서 이해하고 지금을 살아가는 수많은 제도, 기관, 행위자들을 이 과정에 초대한다. 기존의 수많은 학술적 이론과 담론, 정책·제도적 실천들은 빈곤을 계량적으로 정의하고 그 결과를 확인함으로써 그 해결책을 제기하는 반면, 저자는 빈곤의 현장에서 올려본 담론 및 제도적·실천적 풍경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빈곤에 얽힌 물질, 담론, 정동의 연결망을 정면으로 직시한다.

저자가 현장에서 수행한 20여 년 간의 인류학적 관찰은 빈곤의 배치가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꼼꼼히 추적하면서, 수많은 실천들이 자아내는 그 복잡성이 어떻게 배열되어있는지를 **정면으로 직시**한다. 즉, 빈곤이 구성되는 과정과 그 배치를 생생하게 드러내는 동시에, 빈곤을 다뤄 왔던 기존 실천, 담론, 정동의 문제점과 속살을 가감없이 드러낸다. 기존의 성과를 존중하는 동시에, 빈곤의 현장에서 올려본 담론의 풍경들과 제도적 풍광들, 그 이면의 정동들을 서슴없이 보여 주고, 새로운 인식과 실천의 길로 끊임없이 이

끌어 간다.

저자는 「서문」에서 과감하게 자신의 견해를 던지면서 시작한다. “**빈곤은 어디에나 있다.**” 지구상의 모든 생명은 빈곤과 연결되어 있고, 우리 모두 지긋지긋한 빈곤에서 빠져나왔다고 안도하기엔 이르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저자는 다시 덧붙인다. “**빈곤은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 (자원) 봉사자, (시민사회) 활동가, 정책 실무자 연구자, 예술가, 기자 등 매개자 (mediator), 대화자(interlocutor)들이 빈곤을 어떤 식으로든 재현하고 쟁점화하는 가운데, 정부도, 기업도, 시민 대중도 빈곤의 연결망에 깊숙이 연루되어 있다. 때로는 선의(善意)로, 때로는 공모(共謀)를 통해서 복잡하게 연결된 빈곤의 연결망 속에서, 빈곤을 어떤 식으로든 재현하고 쟁점화하는 데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는 동시에, 경제적 결핍이란 지위 내야 할 불운, 수치, 숙명이란 점에서 이러한 얽힘을 감지하지 못하거나 외면하기도 하면서 그 복잡성은 드러난다.

그런 점에서, 저자는 ‘빈곤이란 무엇인가, 빈자란 누구인가’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시도하기보다는, 돈 없고 집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돌봐줄 이도 없는 상태, 물질적 결핍과 경제적 고립, 약자, 피해자, 수급자, 의존자 따위의 전형적 분류로 답변되어 왔던 이 질문에 간단히 답하기를 일부러 실패하고 거듭 반복한다. 그런 점에서, 빈곤은 빈자에게 그렇듯 독자에게도 과정이 된다.

저자가 ‘**빈곤 어셈블리지**’라고 부르는 이러한 시도는, ‘빈곤 레짐’을 닫힌 구조로 남겨 두기보다는, 새로운 변화와 가능성에 열린 어셈블리지 (assemblage)로 만드는 작업을 포함한다. 그 과정에서 연구·운동·정치적 초점이 되는 빈곤은 하나로 수렴되지 않으며, 물질적·담론적·정동적 힘이 얽히는 과정으로 변모한다. 저자는 물질적 결핍이란 조건과 가난함에 대한 인식 및 감각 사이의 불일치에 주목하면서 (서로 마찰을 일으키기도 하는) 빈곤 경험의 지층들을 헤집고, 빈자의 외연을 확장한다. 저자는 제도, 법규, 지식, 기술 등 일련의 장치들이 행위자와 관계를 맺는 가운데 특정한 주체(성)가

형성되는 장을 레짐(regime)으로, 빈곤에 대한 인식과 감각의 형성도, 빈곤 경험의 재현과 빈곤 문제의 공론화도 모두 한 시대의 빈곤 레짐과 관계하면서 이루어짐을 강조한다.

또한 저자는 ‘어떻게 통치할 것인가’의 문제에 주목하며 실천들의 내재적 조건과 제약에 관심을 기울인 미셸 푸코의 통치성 이론에 기대는 동시에 역사인류학적인 독해를 통해서, 빈곤레짐에서 작동하는 미시권력의 견고한 힘뿐만 아니라 권력관계의 취약성, 우발성, 불확실성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다. 그런 점에서, 저자는 빈곤레짐의 규범화된 지식이나 통치 양식을 거스르는 실천을 현장에서 발견하고, 빈곤 레짐이 빈민을 주체화하는 방식의 대항 서사로서 빈자의 문화기술지(ethnography)를 쓰고, 빈곤 레짐에서 익숙하게 반복하는 담론 구조를 답습하는 대신 참여자-연구자로서 다른 실험과 실천을 시도하는 작업에 무게를 둔다.

저자가 풀어내는 ‘빈곤 과정’의 중층성과 복잡성은 읽는 독자들에게 때로는 통쾌함을, 때로는 뜨끔함을 자아낸다.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빈곤에 대한 각종 담론과 제도적 실천들은 현장의 경험을 통해 끊임없이 되물어지고, 저자가 조각보처럼 엮어 내는 빈곤-어셈블리지는 하나의 현장을 충실히 담아내면서도 20여 년 간 수행해 왔던 경험이 ‘현재의 저자’에 의해 중횡무진 현장들을 연결하며 서술하는 이론적·실천적 논의를 통해서 새로운 고민으로 연결된다. 특정한 양식과 문법 안에 ‘고이고’ 말았던 가난에 대한 되물음은 서울 난곡지역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작동하는 ‘수급’의 의미와 효과에 대한 논의(1장)로 연결되고, 중국 동베이(東北) 지방 노동자들의 생활세계에서 의존의 의미 변화, 자활이 복지 수급과 접속하기 이전에 상호의존으로 번역했던 한국 빈민운동의 역사(2장)를 소환한다. 중국 선전 폭스콘 공장지대의 쩌메이(3장)의 6년에 걸친 ‘변화무쌍한’ 노동 궤적에서 노동과 빈곤, 노동자와 복지 수급자를 구분하는 기존 지식 생산 지형은 해체되고, 중국 하얼빈의 농민공 쑤위편(4장)의 복잡한 관계망과 분투하는 삶에서 ‘자격’에 대한 물음으로 이어진다. 가난한 개인 그 자체로 ‘세계’

가 되는 문화기술지에서 빈곤은 부단한 과정이자 고된 분투로 등장한다. 무허가 판자촌, 공장지대, 슬럼화된 노동자 거주지 등 빈곤의 전형성이 도드라진 현장에서 전형적이지 않은 빈곤의 역사성과 관계성이 드러나고, 대학 수업, 이주자들의 공간, 국제개발과 자원봉사 무대처럼 서로 이질적인 현장에서 빈곤이 실존의 불안으로 현상하는 공통성이 포착된다.

### 3. 불확정적 외연으로서의 빈자: 끊임없는 질문과 외연 확대의 도발성

저자를 곤혹스럽게 했던 ‘오늘날의 빈자(貧者)란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불확정적 외연으로서 빈자를 끊임없이 되묻고 확대하면서 도발적으로 답변된다. 경제적·생태적 위기가 반복되고 일상과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진 현 세계에서 물질적 생존의 문제만큼이나 실존의 빈곤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실존의 빈곤을 보여 주는 가장 극명한 사례로, 저자는 1장 서두에서 2019년 한 조사결과를 통해 가난하다는 인식과 감각이 물질적 결핍의 객관적 조건과 무관하게 강렬해졌음을 보여 준다. 2019년 20~60대 한국 시민 5,027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절반 이상이 “나는 가난하다”고 답했지만, 그들의 일상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가난’과는 거리가 멀었다. 즉, “가난하다”는 응답자 중 연봉 6,000만 원 이상이 11.35%, 자가 소유자가 51.85%, 대학 졸업자가 64.69%일 정도로, ‘가난’은 ‘리얼’하다. 20억짜리 집을 소유한 자기 가족을 “전형적인 하우스푸어에 중산층”이라 소개한 학 학생의 일화를 덧붙이면서, 나의 ‘진짜’ 가난이 다른 학생의 ‘가짜’ 가난에 도둑맞았다는 억울함, 상대적 박탈감의 서사 속에서 ‘가난’의 ‘진정성’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묘한 풍경을 드러낸다.

불확실성의 시대에 우리는 ‘빈자’의 외연으로 끊임없이 포함되려는 강

박에 시달린다. 당장의 생계를 걱정하지는 않더라도, ‘이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강박은 불평등의 경험·인식·감각의 엇박자 속에서 주검에 가까운 생명부터 삶의 비극성에 천착하는 대중까지 다양한 층위의 빈자를 출현시킨다. 실존의 불안을 호소하는 청년들이 자원봉사자로서 글로벌 빈곤 퇴치의 책무를 자임하는 역설(5~6장)이 한·중 대학생으로 구성된 한국 대기업 자원봉사단의 중국 활동을 통해서 제시된다. 일방적인 선물을 거부하는 중국-국가, 전략적 이익에 몰두하는 기업, ‘진정성 게임’을 반복하는 실무자, 타인의 빈곤보다는 자신의 불안을 치유하고 싶어하는 한국 학생, 빈곤산업의 내부고발자를 자처하는 중국 학생이 뒤엉킨 현장을 통해 저자는 청년들이 애써 봉합하고 있는 불안을 쟁점화하기도 했지만, 새로운 개입방식과 글로벌 반빈곤활동의 진정성, 한국 주민(빈민)운동과 인연을 맺은 ‘비주류’ 청년들의 모습들 또한 잊지 않고 제기하며 새로운 실천의 가능성 또한 여전히 열어 놓는다.

그럼에도 저자가 한국과 중국의 현장에서 목격한 불안의 가공할 힘은, 빈자들 간의 불화나 적대를 부추긴다. 중국 동베이 선양(瀋陽)의 한인타운에서 하향 이동과 실패의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한국인 이주자들은 상호 의존이 절실하지만 한국인 영세 자영업자, 조선족, 탈북민 관계의 부침 속에서 의존이 오염의 표지로 등장한다(7장). 또한 저자의 〈빈곤의 인류학〉 수업에서 학생들과 진행한 프로젝트를 통해, ‘말할 수 있는’ 프레카리아트(precariat)인 대학생-청년이 반(反)빈곤 활동가와 대화하며 도시 빈민이라는 다른 프레카리아트와 마주치는 상황의 긴장을 보여 준다(8장).

그럼에도, 이러한 마주침은 새로운 도발적인 문제제기와 성찰의 계기를 제공하기도 한다. 성공적으로 자리 잡은 논골신탁의 문제로 ‘무임승차’ 가능성을 제기한 대학생-청년의 질문은 동료 세입자들이 철거 투쟁 속에서 만든 사회와 “타인의 ‘무임승차’를 노여워하며 빗장을 걸어 잠그는” 사회의 대조로 되먹임되기도 하고, 학생들과 활동가들의 마주침은 그간의 익숙한 문법과 실천, 습성을 문제화하는 ‘성찰의 현장’을 제공했다.

그렇다면 인구 다수가 불평등 구조의 피해자를 자처하는 “경계 없는 불평등”의 시대, 다른 한편 금융자본주의와 팬데믹을 거치면서 부의 양극화가 가파르게 진행 중인 시대에 빈곤을 긴요한 정치적·윤리적 의제로 소환할 수 있을까? 저자는 그렇다고 “삶의 위협, 불안, 공포를 겪는 자들의 연대”가 예비된 것도, 자동 발생적인 것도 아님을 강조하지만, 그럼에도 학생들과 활동가, 지역 빈곤층 주민과의 마주침이 질문들을 스스로 던지기 시작했음에도 주목한다. 저자가 ‘말할 수 있는’ 프레케리아트로 명명한 어느 정도의 교육·문화 자본을 갖춘 대학생 청년들의 불안정성, 그에 깃든 양가성(우울과 열망)과 위계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다른 프리케리아트와의 마주침을 통해서 향후 이들이 자신의 곤경과 창발성을 어떻게 마주하느냐가 취약한 삶의 반목이 지리멸렬하게 지속되는 현 상황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저자는 밝힌다. 저자는 물론 헛발질은 감수해야겠지만, 적어도, 사람들이 만드는 배치를 단순히 따라가기보다 함께 배치를 만들어 가는 정치적·윤리적 실천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저자는 마지막에 ‘인류세의 빈곤’(9장)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제안한다. 저자가 책 서두에서 ‘우리 시대 빈곤은 어떠한가’라는 질문을 ‘빈곤을 어디로 가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바꿔 보기를 제안한 것처럼, 지구로움의 위태로움이 강렬히 포착되는 시대에 어떻게 빈곤에 접근해야 하는가에 대한 진지한 질문을 궁구했다. 지구생활자-과괴자가 치열하게 붙들여 온 ‘발전의 꿈’과 인간의 취약성·유한성이라는 공통의 숙명을 대조하면서, 저자는 후자에 더욱 초점을 맞추어 오랜 시간 한국 사회 반(反)빈곤 활동가들이 보여 준 ‘동거’(同居)를 참조할 만한 지구거주자의 윤리로 소개하며 다음과 같이 마무리한다.

취약하고 유한한 존재, 빈곤이라는 문제, 빈곤을 둘러싼 공론장, 빈곤에 맞선 비판·저항과 함께(同) 머무르고 살아간다는(居) 감각과 인식, 의지와 노력이 지구라는 너른 지평에서 창발하는 꿈은 여전히 나를 긴장하게 만

든다. 지구와 오래 동거하고 싶은 인간이라면 기꺼이 감수해야 할 긴장이다.(p. 398)

#### 4. 나가며

이 책은 빈곤이라는 엄중한 질문에 직면하여 저자가 20여 년 간 누빈 현장들을 시공간적으로 연결하고 빈곤을 대하는 우리의 질문을 보다 열린 형태로 다채롭게 열어젖힌다. 인류학자로서 갖는 생생한 현장 경험에 더하여, 저자의 깊은 고민과 폭넓은 독해, 끊임없이 되먹임의 과정을 통해 우리가 갖고 있는 기존 상식은 해체된다. 저자가 말했듯이, 이 책은 우리가 어떤 빈곤을 어떤 방식으로 쟁점화하거나 외면했는지 훑아보면서 ‘빈곤을 어디로 가게 할 것인가’를 부단히 질문한다. 그 과정에서 독자에게 빈곤과 관계 없는, 빈곤을 바라보던 시각에서부터 벗어나, 점차 참여자-연루자의 감각을 시나브로 비려 나갈 수 있는, 매우 귀중한 체험을 제공한다.

굳이 하나의 아쉬움, 또는 향후 조금 더 살펴보기를 바라는 부분을 꼽는다면, 바로 가족의 문제다. 일반적으로 한국과 중국에서 사회적 위험을 견디는데 가장 큰 지지기반을 제공한 것도 가족이고, 또 이들을 가장 힘들게 한 것도 가족일 것이다. 가난에 중첩된 가족의 문제는 때로는 지지와 돌봄으로, 때로는 결핍과 과중으로 드러날 수 있고, 더욱이 최근에 와서는 기존 ‘정상 가족’의 모습과는 또 다른 다양한 실천과 결합의 양상들 속에서 새로운 ‘(탈)빈곤 과정’이 드러날 것이라 기대되기도 한다. 이미 몇 년 전 모 학술회의의 토론에서 서평자가 저자에게 가족의 문제를 조금 더 살펴보기를 제안했던 바가 있는데, 혹여 서평자의 헛발질이 아니었다면 추후 저자의 고민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

저자가 「서문」에서 빈곤과 관련된 자기 경험을 고백한 것처럼, 서평자 또한 빈곤이란 화두 앞에서 여전히 모순투성으로 살아간다. 부유하지 않았

던 어린 시절의 기억이 끊임없이 현재를 불안케 하고 ‘생존’의 문제로 되먹임되기도 하고, 학부 시절 다녔던 철거 현장과 빈곤 현장에 새롭게 세워진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면서 실존적 고민에 싸이기도 하며, 서평자의 주된 연구대상인 중국 농민공(農民工)이 궁핍한 삶 속에서 보여 주는 긍정과 부정, 열망과 절망의 몸짓을 바라보며 때로는 나 자신을 (재)발견하기도 한다. 본 책을 읽고 드는 가장 큰 깨우침이란, 이러한 실존적 고민과 주변에의 관심을 정면으로 직시하고 기존 논의에 갇히지 않고 끝까지 추궁하며 극단으로까지 밀어붙이는 저자의 진솔함이다. 그 과정을 통해서 저자는 빈곤 레짐의 기존 배치를 문제 삼으면서 새로운 배치를 만들어 가는 일을 제안하고, 개별 학문 분과의 언어와 문법에 종속시키지 않으면서 다학제적 대화의 주체로서 재발견하는 동시에 현장과 현장을 연결하면서 한국과 중국의 지역학의 경계를 허물어 간다. 우리는 과연 빈곤을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 또는 저자의 말처럼, 빈곤을 어디로 가게 할 것인가? 빈곤의 엄중함과 개인화된 불안 속에서 현 시대 가장 주요한 질문에 우리 또한 정면으로 직시해 볼 때다.

## 참고문헌

소준철(2020), 『가난의 문법』, 푸른숲.

